

캐논 마스터즈 임재천 작가와 함께한 스위스 발레주 촬영 여행기

글. 오동균 tbs 라디오기술부



스위스 발레주 촬영 여행은 캐논의 첫 번째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 EOS R을 정품 등록한 고객 중 10명을 선정하여 2018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발레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캐논 마스터즈이자 다큐멘터리 사진가인 임재천 작가가 동행하였으며 스위스 발레주 한국사무소가 전 일정을 함께 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촬영한 웅장하고 이색적인 발레주의 풍경 사진을 모아 2월 14일(목)부터 3월 17일(일)까지 압구정 캐논 갤러리에서 무료 전시회를 가진다.

※ 글의 사진은 모두 캐논 풀프레임 미러리스 EOS R과 RF/EF 렌즈로 촬영되었습니다.



스위스 발레주는?

스위스 남서쪽에 자리한 발레주는 남쪽으로 이탈리아, 서쪽으로 프랑스와 접한다. 알프스산맥이 뻗어 있는 산악지대로, 전체면적의 1/2은 산림, 목초지, 빙하이다. 이런 자연환경 때문에 도시가 없고 인구밀도가 아주 낮다. 그러나 여름철 기온이 쾌적하고 해발고도 4,000m 이상의 고봉이 많아 관광·휴양산업이 발달해 있다.

11월 23일, 간밤에 좋은 꿈이라도 꾸 걸까? 스위스 출사 여행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검색해보니 오늘이 발표일, 그리고 내 아이디어가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응모한지라, 발표일은 고사하고 응모 자체를 까맣게 잊고 지냈었는데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기쁘기도 했지만 연말에 장기간 휴가문제와 와이프의 독박 육아가 한편으로는 걱정되었다. 더욱이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가고 싶어 했던 와이프였지만 남편에게 설득당해 몰디브로 양보한 터라 미안한 마음은 더욱 컸다. 이 자리를 빌려 회사와 와이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사진을 좋아하는 나에게 ‘촬영 여행 그리고 스위스’만으로도 벽찬 기대감과 행복한 고민을 동시에 주었다. EOS R은 새로운 미러리스 전용인 RF 렌즈뿐만 아니라 어댑터를 통해 기존 DSLR 전용 EF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렌즈 구성 고민이 가장 컸다. 고민 끝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 무겁더라도 모든 렌즈를 가져가는 쪽으로 짐을 꾸렸다.

Day 1. 취리히로 이동

긴 여정의 시작일, 인천공항에서 모여 아직은 서먹서먹한 인사를 나누고 스위스 패스와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받고 탑승 수속을 진행했다. 우리는 뮌헨을 경유해서 취리히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했다. 나는 유럽 첫 방문이라는 설렘에 장시간의 비행도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았다. 신기했던 점은 입국심사를 경유지인 독일에서 했다는 것이다. EU 국가는 보통 경유지에서 입국심사를 한다고 한다. EU라는 공동체를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다. 첫날은 별다른 일정 없이 취리히 인근 공항에서 여정을 마쳤다. 스위스에 온 게 그리 크게 실감 나지는 않았다.

Day 2. 빙하 특급(Glacier Express) 열차를 타고 마테호른의 마을 체르마트로

빙하 특급은 생모리츠와 다보스에서 출발하여 체르마트까지 이동하는 열차로 노선의 길이가 300여km에 이르며, 7개의 골짜기, 291개의 구름다리, 91개 터널을 통과하며 전 구간 운행시간은 약 8시간이다. 이름은 특급이지만 30Km/h로 이동속도가 빠르지 않



아 ‘세계에서 제일 느린 특급열차’로 불린다. 파노라마 창이 설치되어 있어 어느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카페테리아 칸도 있어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3코스의 요리도 주문이 가능해 식사를 즐기며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일정상 안데르마트 지역에서부터 빙하 특급을 탑승하여 약 3시간 이동하였다. 스위스 발레주 본사 ‘헬뮤트 바이너’ 이사도 동승하여 스위스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맛있는 식사로, 눈과 입이 호사를 누리는 동안 어느덧 열차는 체르마트에 도착하였다.



발레주 전통요리 ‘라클렛’



빙하 특급 열차

저녁으로는 발레주 전통요리인 ‘라클렛’과 발레주 지역에 사는 양고기 스테이크를 스위스 와인과 함께 먹었다. 라클렛은 커다란 원형 치즈를 반으로 자르고 단면을 열에 녹인 후 녹인 부분을 굽어 접시에 내놓고 감자, 양파, 토마토, 피클 등과 함께 먹는 전통요리이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이었고 양고기는 양 특유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가장 좋았던 건 스위스 와인이었다. 발레주는 스위스에서도 유명한 와인 제조 지역 중 하나인데, 내수 수요가 많아 수출되는 양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유럽 외 외국인들은 잘 모른다고 한다.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맛이였다. 결국 귀국할 때 2병을 사 왔다.

Day 3. 고르너그라트 산악열차와 마테호른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함박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마테호른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기예보를 확인해보니 다행스럽게도 오후부터 차차 맑아진다고 해서 걱정을 조금 덜었다. 스위스 일기예보는 지역별 고도별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고도에 마을이 있고 유명 관광지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았다.

마테호른은 ‘파라마운트’ 영화사 로고이자 ‘토블론’ 삼각형 초콜릿의 상표 이미지로 이름은 몰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스위스 알프스의 대표적인 봉우리다. 마테호른을 못 보고 간다는 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기에 다들 걱정을 하며 고르너그라트로 출발하였다.

고르너그라트 산악열차



고르너그라트(3089m)는 스위스 알프스의 상징인 마테호른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이다. 체르마트 역 맞은편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30여 분을 올라가야 한다. 고르너그라트 산악열차는 1898년부터 운행된 스위스 최초의 톱니바퀴 산악열차이다. 고르너그라트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간이역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어 트래킹을 즐기는데도 무리가 없다. 한 가지 팁은 올라갈 때는 오른쪽, 내려올 때는 왼쪽에 앉는 것이 좀 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열차를 타고 올라가 보니 마테호른 방향은 아직 구름이 걷히지 않았고, 반대쪽은 서서히 맑아지고 있었다.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에선 한국인만 ‘신라면’을 무료로 먹을 수 있다. 단, 발레주 한국사무소 블로그에서 사전에 쿠폰을 출력해 가야 한다. 해발 3,000m가 넘는 지역이라 숨이 금방 차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다. 날씨가 맑아지지 않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리펠버그 역에서 내려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한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마테호른이 조금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들 감탄사를 뱉으며 셔터를 눌러 마테호른을 담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구름이 벗겨지지 않았지만 마테호른의 웅장함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에서



마테호른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체르마트 마을 풍경

다시 체르마트에 내려와서 어제 둘러보지 못한 마을을 둘러보았다. 체르마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 마을이지만 중심가엔 예전의 주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또한 마을 내 모든 차량은 전기차만 운행 가능하며 주민이라도 내연기관 차량은 마을 밖 주차장에 차를 놓고 들어와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체르마트 지역에도 우리나라의 전통 소싸움과 씨름 형태와 상당히 유사한 민속경기가 있다고 한다.



마테호른과 달 촬영

체르마트의 일출과 일몰은 마테호른부터 시작된다. 산악마을이라 지평선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없고 해가 뜨면 마테호른의 꼭대기에 반사되어 촛불처럼 마을을 환하게 밝혀준다. 일몰 또한 마테호른의 주변 구름과 하늘색이 변할 때 시작된다.



마테호른 일출과 일몰





리더알프 마을

Day 4. 유럽 최대의 빙하가 있는 리더알프

리더알프는 알레치 지역의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조용한 산악 마을로 ‘모렐’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해 보니 호텔로 짐을 나르기 위한 대형 스노모빌이 도착해 있었다. 마을 전체가 눈으로 뒤덮여 있다 보니 택시가 스노모빌이라고 한다. 마을 안에는 걷는 사람도 많았지만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냥 마을이 하나의 거대한 스키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뒤편엔 알레치 빙하가 자리 잡고 있는데, 길이 16km(최대 26.8km), 평균 너비 1.8km, 깊이는 최대 800m로 유럽 최대 규모이다. 알레치 빙하뿐만 아니라 알레치 지역 자체가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우리는 스키어들과 섞여 리프트를 타고 알레치 빙하를 조망할 수 있는 정상으로 올라갔다. 겨울이라 산과 빙하가 온통 눈에 뒤덮여 구분이 불가능했지만 대략 짐작할 수는 있었다. 하절기에 오면 빙하 근처까지 내려가는 트래킹 코스도 있다고 한다. 리더알프는 겨울철 스키뿐만 아니라 트래킹,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우리도 설경을 감상하면서 빙하를 따라 마을로 내려오는 트래킹을 했다. 멀리 알프스의 봉우리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내려오는 풍경은 환상적이었다. 길이 다져져 있지 않은 곳은 눈이 60~70cm

는 쌓여있어 말 그대로 눈에 파묻히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저녁식사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1960~70년대 할리우드에서 묘기스키로 여러 영화에 출연한 아트스키의 창시자 ‘아트 퓨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그는 리더알프와 브리그 지역에 호텔을 운영하며, 지역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리더알프엔 세계적인 식품기업 네슬레의 회장 부인이 소유하고 직접 내부 인테리어에 참여한 호텔도 있다.

Day 5. 세계 최고 높이의 회전 레스토랑과 얼음 궁전

사스페는 사스 골짜기의 중심지, 지도상으로 체르마트 옆 골짜기에 위치해 있으며, 철도가 없어 브리그에서 버스로 이동한다. 사스페 또한 마을엔 전기차만 운행할 수 있어, 내연기관 차량은 마을 밖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사스페는 위대한 알프스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는 최적이어서 알프스의 진주라고 불린다. 사스페가 유명한 다른 이유는 알라린 전망대에 있는 세계 최고 높이(3,500m)의 회전 레스토랑과 최대 규모의 얼음 궁전이 있기 때문이다.

알라린 빙하 근처에 있는 알라린 전망대에 가기 위해선 케이블카를 2번 타고 세계 최고의 높이에 있는 지

하철(메트로 알핀)을 타야 한다.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라 가끔 어질어질했지만 눈 앞에 펼쳐진 절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레스토랑은 1시간에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알라린 빙하를 비롯해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다. 물론 바깥으로 나가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얼음 궁전은 실제 빙하를 동굴처럼 파서 다양한 빙하 조각과 영상 전시를 하는 곳이다. ‘겨울왕국’의 엘사 궁전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일 거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곳이다. 또한 실제 빙하 내부를 만져 볼 수 있으며, 자연 발생한 다양한 얼음 결정을 눈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스페 지역 호텔에 숙박을 하게 된다면 ‘시티즌 카드’를 호텔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티즌 카드로 케이블카를 숙박 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사스페는 체르마트 보다 관광지의 느낌이 덜 한 곳이었다. 그래서 훨씬 조용하고 현지인들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었다.

Day 6. 영국 왕실의 휴가지 베르비에

베르비에에는 스위스 최고의 스키 리조트가 있는 산악 마을로 한국인에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영국 왕실과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주 휴가를 올 정도로 서구권에서는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겨울철에는 익스트림 스노보드 대회가 개최되고, 여름에는 ‘베르비에 페스티벌’이라는 국제 음악축제가 열리는 등 사계절 볼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케이블카나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이곳은 프랑스와 인접해 있는 곳이라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한다. 지금까지 돌아본 지역은 대부분 독일어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로 이동한 기분이었다. 베르비에의 호텔을 비롯한 가옥들은 전형적인 스위스 산간마을 전통 오두막 형태의 집, ‘샬레’ 양식으로 지어져 있다. 외관은 대부분 샬레형식을 따르지만 내부는 천지 차이가 나고 거기서 숙소등급이 결정된다고 한다.

우리의 목적지는 몽블랑과 마테호른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몽포트’였다. 몽포트(3,330m)에 가기 위해선 4번의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다행히 날

리더알프에서 바라본 브리그 야경



알라린 빙하와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베르비에 리조트



베르비에 마을





스톡칼퍼성과 브리그 마을



씨도 좋아서 알프스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래 지역 날씨는 맑았으나 몽포트가 있는 고도의 날씨는 구름이 잔뜩 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르너그라트에 올랐을 때와 몽포트에 올랐을 때 날씨가 스위스에서 가장 아쉬운 날씨였다.

Day 7.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브리그

스위스 촬영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브리그는 발레주 관광과 교통의 중심 마을이다. 발레주 대부분의 관광지까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고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리그 내 숙소를 잡고 당일치기로 주변 관광지를 돌

러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브리그 중심엔 ‘스톡칼퍼성’이 있는데 스위스에서도 손꼽히는 바로크 양식의 성으로 유명하다. 17세기 이 지역의 상인인 스톡칼퍼가 실제로 거주한 곳으로 내부엔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성 주변으로도 중세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이 많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더욱이 이날은 함박눈까지 펄펄 내려 운치를 더해 줬다. 하지만 카메라와 렌즈에 순식간에 눈이 쌓였다. 쌓이는 눈에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다시 못 올 곳이기엔 눈을 털어가며 촬영을 했었다.

여행을 마치며

7박 9일의 여정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스위스 발레주 지역에 매력에 푹 빠진 여행이었다. 스위스 알프스의 압도적인 풍경을 한정된 시간에 평면의 프레임에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았고 좀 더 잘 찍기 위해 촬영 여행 기간 내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러한 고민을 동행한 임재천 작가와 참가자들과 나누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EOS R의 조작 방식은 캐논 DSLR과 비슷해 낯설지 않게 촬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추운 날씨와 눈이 내리는 약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촬영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스위스 발레주 한국 사무소 Alex 소장님과 한창목 과장님, 캐논코리아 황중환 대리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

